

NEWS 방송계 동향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변경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17부 5처 15청’이 ‘18부 5처 17청’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자체가 ‘미래’ 개념을 포함하기에 명칭이 변경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본부장)도 신설된다.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수신 가능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라디오 방송 수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김진해 전무는 지난 4일 열린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재난방송 매체인 라디오 수신을 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가”라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부터 삼성전자 휴대폰에 라디오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휴대폰에는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칩이 내장되어 있으나 통신사와 가전사의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통한 라디오 수신이 가능해진다면 재난 방송에도 대응하고, 가계통신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대표 하이브리드라디오앱 서비스사 ‘넥스트라디오(NextRadio)’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넥스트라디오는 FM 수신과 관련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져 라디오 청취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라디오 수신 의무화와 넥스트라디오 국내 진출 등 라디오 업계의 대응과 방향 선정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17년 2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열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크게 높인 회원에게 분기별 수여하는 2017년 2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이 지난 6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0층에서 열렸다. 2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은 8명과 1팀으로 다음과 같다.

△곽명석(KBS) △강동석(MBC) △이학주(SBS) △이봉석(EBS) △한광익(CBS) △임세혁(YTN) △아리랑국제방송 제주연주소 △박효진(TBN) △최철규(KNN)

UHD 정책연구반, 차세대 방송기술 연구팀 운영 예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앞으로 UHD 정책연구반과 차세대 방송기술 연구팀을 운영한다. UHD 정책연구반은 지상파 방송사의 전문 연구진과 자문 교수로 구성되어 UHD 관련 필요 정책과 교육 등을 연구하여 정부에 제안을 통해 UHD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이다.

차세대 방송기술 연구팀은 역시 지상파 방송사의 연구진과 자문 교수로 구성하여 IT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신규 기술업무 발굴과 함께 방송사 내의 원활한 업무 시프트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월 25일 제25-2대 대의원대회 개최 예정

제25-2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대의원대회가 8월 25일 6시 30분에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다. 지난 1년 간 사업 결과와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대의원대회에서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경과 보고와 활동 보고, 안건 토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된다.

EBS

‘찾아가는 중계차 체험’ 열려



지난 7월 19일 EBS에서는 농산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EBS 찾아가는 중계차 체험’을 진행하였다.

경북 영양중앙초등학교와 석보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방송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체험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이 두 학교는 EBS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시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로 학생들은 카메라, 오디오, 기술, 영상 부분의 전문 제작진들과 함께 중계차, 크로마, 카메라, 아나운서 체험 등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였다.

OBS

OBS 신규 프로그램 <도전! 기업인스타>



OBS는 지난 7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2시 05분) <도전! 기업인스타> 방송을 시작하였다.

<도전! 기업인스타>는 인스타그램(SNS)과 사람 + 스타의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과 상생하며 고용을 창출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업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좋은 사례가 되고 시청자들에게는 엄선된 정보 제공과 창업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SBS

<애니메이션 런닝맨> UHD로 방송



SBS 대표 주말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UHD로 방송되었다. SBS와 라인프렌즈가 공동 기획하고 로커스 스튜디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런닝맨>

은 동물 종족을 대표하여 '런닝맨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들이 벌이는 모험과 반전을 그린 판타지 코믹 액션물이다. 예능 <런닝맨>을 대표하는 이름 뜯기를 포함한 게임과 아이템이 3D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되어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방송은 물론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동남아, 호주 등 아시아 20개국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CBS

CBS 디지털기술국, 생방부스 nCROS 버전업 절체 작업 실시



CBS 디지털기술국은 지난 7월 말 표준FM, 음악FM, JOY4U 등 생방부스에 대한 오디오파일시스템 nCROS 버전업 절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생방부스에 대

한 nCROS 버전업 절체 작업은 CBS의 오디오파일시스템 초기구축 당시의 하드웨어와 OS가 이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최신OS와 하드웨어에 맞게 버전업을 실시한 것이다. 버전업과 동시에 사용자 환경(UI) 또한 대대적으로 변화되어 절체 작업 후 진행자들의 조작 실수 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도 몇 주에 걸쳐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번 절체 작업을 통해 생방송시 오디오파일의 안정성을 높여 방송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확장성 또한 넓혀와 차세대 CBS 뉴미디어의 중심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MBC

'예능연구소 페이스북' 100만 팬 돌파

MBC가 최근 아시아 지역에 'Certified Program'을 론칭한 유튜브의 대한민국 1호 Certified Company로 선정됐다. 유튜브의 Certified Company가 되기 위해선 '채널 성장' '콘텐츠관리' '수익화'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유튜브가 제시한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MBC는 지난해 '유튜브 아시아 미디어 서밋'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 사례로 소개될 만큼 유튜브 채널 운영 규모와 성과, 운영 방식 등 다방면에서 아시아 미디어 그룹의 표본이 돼 있다.

MBC는 2011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MBC Entertainment, MBC KPOP 등 현재 총 10개의 채널을 운영 중이며, 최근 누적 조회 수 97억 건을 돌파, 오는 8월에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100억 뷰 돌파를 앞두고 있다. 또 유튜브 기능 중 'Fan Subtitles' 기능을 활용한 해외 팬들의 자발적인 자막 작업은 더욱 많은 해외 팬과 만나는 원동력이 됐다.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TV의 미니 콘서트 프로그램 I'm Live



가수와 관객의 거리 '1m', 손닿을 듯 가깝고도 생생한 무대를 소개하는 아리랑TV의 [I'm Live]. 라이브 음악에 강한 뮤지션들과 생생한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I'm Live] 16회의 주인공은 R&B의 본토를 떠올리게 만드는 소울풀한 음색의 싱어송라이터, 지소율이다. [I'm Live]는 국내 실력파 뮤지션의 라이브로 진행되는 미니 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원형 무대 주변으로 관객이 가깝게 둘러앉아, 하나의 공간에서 뮤지션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이다.

BBS

BBS 경력 및 신입사원 공개채용

BBS는 지난 7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 모집분야는 경력(TV PD, 신입(PD, 기자, 아나운서)이고 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이며 근무지역은 서울이다. 경력은 서류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으로 진행되고 신입은 서류전형, 필기시험(논술, 불교상식),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8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며, 신입사원은 8월부터 수습과정을 거쳐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KBS

KBS 방송기술인협회, 방송미디어 산업진단 세미나 개최



지난 7월 18일 KBS아트홀에서 KBS 방송기술인협회가 주관한 방송미디어 산업진단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BS 스페셜에 출연한 축적의 시간의 저자 이정동 교수 초청 강의로 기술인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 산업의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이정동 교수는 미래 미디어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과 작은 아이디어라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스케일업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 LTE TV(위성+LTE) 론칭!

KT스카이라이프는 KT와 지난 12일 KT스퀘어에서 기존 이동체 위성방송의 한계를 극복한 '스카이라이프 LTE TV(SLT)' 서비스를 공개했다. SLT는 국내 지형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고 터널 등을 지날 때 위성신호의 끊김 현상을 LTE 신호로 대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핵심이다. 설치비는 기존과 같은 11만 원이고 서비스 이용료 또한 1만5000원으로 동일하며 9월까지 설치비 무료, 서비스 3개월 무료 등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연말경 VOD 서비스도 이용가능토록 하여 현재 4만 명의 이동체 시장 고객을 올해 14만 명, 내년까지 34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